



◀ 지난 6월 23일 수원 축산연구소에서 일본 축산초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동향 및 축산악취방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할 때”

농진청, 한일 공동 ‘친환경 냄새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와 일본이 악취방지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 공동으로 기술개발 모색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6월 23일 수원 축산연구소 3층 강당에서 일본 축산초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동향 및 축산악취방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축산연구소와 일본의 축산초지연구소는 그동안 축산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기술 개발과 축산악취 규제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축산초지연구소 구로다 박사의 ‘일본 악취방지대책과 효과적인 측정방법’, 요나가 박사의 ‘일본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연구개발 동향’,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유용희 박사의 ‘한국 축산악취방지기술 개발’ 곽정훈 박

사의 ‘한국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축산연구소 유용희 박사는 “일본은 악취방지법을 1972년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냄새저감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악취저감 기술개발은 사료 등 영양물질,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사용방법, 격리거리, 주변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기술성과 공유 통해 자원화 촉진에 도움될 것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최근 10여년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악취방지법 시행 및 가축분뇨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악취 저감형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조기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